

TIPLONews 한국어본

2021 년 12 월호(K268)

K211126X4

K211126Z4

01 미국 Micron 과 대만 UMC, 글로벌 합의 발표

미국 Micron¹⁾과 대만 UMC²⁾는 2021 년 11 월 26 일 전면적인 화해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쌍방은 각각 상대측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는 동시에, UMC 는 Micron 에게 일괄적으로 화해금(금액은 비밀 유지)을 지불하게 되며, 향후 쌍방은 비즈니스 제휴의 기회를 함께 창출해 나가려 하고 있다.

Micron 은 2017 년 2 월 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UMC 가 중국 복건성(福建省)에 있는 JHICC³⁾에 협력하여 Micron 의 DRAM 제조공정을 훔쳤다고 고소했다. 구체적으로는 Micron 에서 UMC 로 전직한 종업원 3 명을 이용해, Micron 의 기밀자료를 훔쳤고, 그것을 JHICC 에 건네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해 12 월, Micron 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UMC 와 JHICC 는 2018 년 1 월에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Micron 의 중국 자회사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했었다.

아울러 2018 년 11 월에는 미국 사법부가 JHICC, UMC 및 3 명의 종업원에 대해 영업비밀 절취, 산업 스파이 및 기타 죄명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2020 년 10 월에 UMC 가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UMC 와 미 사법부는 영업비밀사건에 관하여 화해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그 가운데 UMC 는 영업비밀에 관한 부분의 범죄를 인정하고 미국 당국에 벌금 6000 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과 동시에 3 년간의 집행유예 기간동안 미 사법부 조사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었다.(2021.11)

역주:

1. 중국어명 美光科技公司, 영어명 Micron Technology, Inc. (Micron)

2. 중국어명 聯華電子股份有限公司, 영어명 United Microelectronics Corp. (UMC)
3. 중국어명 晉華集成電路有限公司, 영어명 Fujian Jinhua Integrated Circuit Corporation (JHICC)

K211115Y1

02 대만과 한국,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에 관한 각서」에 서명

대만 지혜재산국은 2019 년에 대만 일본간에 디자인 특허출원¹⁾과 관련한 우선권 증명서류(Priority Document Exchange, PDX)에 관하여 제휴를 맺은 데 이어 대만과 한국간에도 2021 년 11 월 12 일에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에 관한 각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대만 지혜재산국과 한국 특허청과의 금회 제휴를 통해 향후 출원인은 보다 간편하게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권 증명서류는 다른 국가에 출원할 때 제출하는 중요한 서류이며, 대만과 한국은 2015 년 「공업 소유권 정보 교환 및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 (Exchange of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PDX)에 관한 각서」에 서명하고 있어 특허와 실용신안의 출원에 적용되어 왔다. 실시 이후, 양측의 출원인에게 본 제도가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이번, 대만 지혜재산국과 한국특허청은 서비스 대상을 넓히기 위해, 디자인 출원도 PDX 의 적용 범위에 넣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디자인등록 출원인은 종이로 된 서류를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노동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해외로의 출원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 게다가 우선권 증명서류의 교환시스템도 더욱 완벽하게 되었다.

대만 지혜재산국과 한국 특허청은 향후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며, 쌍방이 준비중인 일정에 따르면 2023 년 7 월에는 디자인 PDX 를 정식 실시하여 출원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1.11)

역주:

- 1) 대만에서는 디자인 출원의 디자인은 設計專利라고 불리기에 디자인 특허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한국식으로 디자인 출원이라고 번역했다.

K211110Y2

03 안경 대리점이 MIZUNO 상표권 침해 물품을 판매

일본의 스포츠 브랜드인 미즈노(MIZUNO)는 대만에서 안경 관련 상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지 않은데, 최근 수년간 대만 시장에서 MIZUNO 상표를 위조한 안경, 선글라스가 전시, 판매되고있음을 인지했다. 이에 미즈노는 해외에서 대만에 본 건을 고소했다. 대만 경찰은 이에 의거, 4월에 모 안경 대리점 창고를 수색하여 MIZUNO 상표를 위조한 안경 및 관련 상품 총 1만 2000여점(시가총액 대만화폐 약 700만원)을 압류하고 본건을 상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수사한 바에 의하면, 이 대리점의 책임자인 육(陸)씨는 2018년부터 MIZUNO 상표를 위조한 안경 및 관련 상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자신을 MIZUNO의 대만 지역 대리점이라고 소개하며, 안경 1점을 약 대만화폐 1000원에 안경점에 도매가로 판매하였고, 안경점들은 이를 대만화폐 3000~4500원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상표를 위조한 상품은 대만 전역 안경점과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판매되었으며 이미 1만점 이상이 판매되었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은 대만화폐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책임자의 육(陸)씨는 조사를 받은 후, 상표법 위반으로 대북(台北) 지방검찰 이송되었다. (2021.11)